

수버 알럿 아우루닥웨아 ❀

Happy New year!

දුම්බිමේ වැසියා
S... at Sm...

랑카 12월 이야기

형[形] 인연을 만들다

목 차

1. 12월 이벤트 캘린더

2. 한 줄 뉴스

3. 중간평가 후 달라진 활동

3.1 루나와class

3.2 디고롤라마을 방문

4. 관계 맺기 인연 만들기

With who?

니할, 말린드라, 노엘, 갓프리, 유스클럽,
정은범 목사님, 베다니홈, 747식당 마마,
그리고 **우리**

5. 사진으로 보는 12월의 랭카





Merry Christmas~ 12월 이벤트 캘린더

일	화	수	목	금	토	일
					1 중간평가 마지막 날	2 St. Thomas College 캐롤 서비스 참석
3	4 루나와 마을 Playing time 시작	5 디고롤라 마을 방문	6	7 OLV Convent에서 놀이수업 진행	8 노엘 딸 콘서트	9 대통령선거 베다니 홈 아이들과의 첫 번째 만남
10	11	12 디고롤라 마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	13 스리랑카 100일 파티 정은범 목사님과 한국식당 방문	14	15 자아랏나 따파네와 함께한 반다라웰라 여행	16 자아랏나 따파네와 함께한 반다라웰라 여행
17	18 YMCA 캐롤 공연	19	20 우리들만의 영어수업 시작	21 칠드런클럽, 디고롤라 아이들과 함께한 Book Donation	22	23 말린드라따파집 트리 꾸미기
24 자아랏나따파 집 초대	25 (성탄절) 짬뽕 집 초대 말린드라따파 집 초대	26 노엘 집 초대 유스클럽 과 함께한 캐롤 순회공연	27 (Poya Day) 747마마 집 초대 우리들만의 크리스마스 파티	28 베다니 홈 방문 유스클럽 파티	29	30 갓프리따파 집 초대
31 니할따파 생일파티 초대						

한 줄 뉴스

이번 달부터 일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 열시 이후로만 스마트폰, DVD 시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

선거



너무 덥고, 차량 정체
때문에 멀미함.
그렇지만, 뿌듯뿌듯

100일 파티



삼겹살과 김치찌개!
입에서 녹아내림
정은범 목사님과 함
께 해서 더 특별한
하루

영어공부시작



- 시간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있음
- 애써주시는 히말리 선생님 감사요!
-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
-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것-다음기수에게 추천합니다.

빼뜸 금연 백일



한국에서도 계속
되길... 부디!
랑카가 오빠에게
주는 선물중의
하나 '금연'

중간평가 후 달라진 활동내용



중간점검 때의 피드백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주 화요일 루나와에서 영어 수업이 끝나고 마을의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마을 여기저기서 도박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아이들답게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같이 비석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도 볼 수 있고, 같은 마을에 살지만 서로 친하지 않은 아이들이 어울리는데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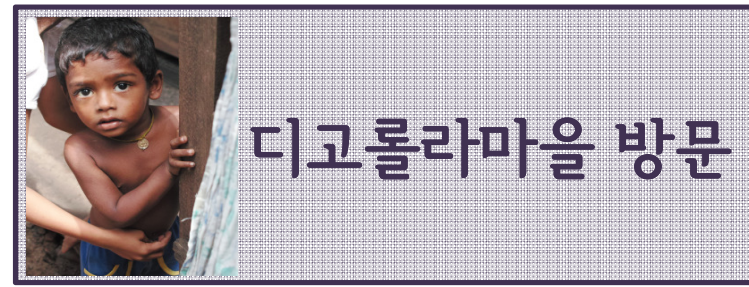


하나둘셋 모여라!

그런데 또 고민...

쓰나미를 겪고 NGO등으로부터 큰 수혜를 받은 지역의 아이들이라서 매번 선물에 너무 집착하는 듯하다. 그래도 중간점검 이후 아나간사님이 해주신 ‘사탕이 아닌 사람으로 모이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새겨들으며 그러한 문제는 차차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일주일에 한번, 수무두와 히말리는
어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인사 나누기->위생교육-> 무엇에 대해 알고 싶은
지 수요조사('아이들 교육'으로 결과 수렴)
-> 아이들 교육 중에서도 어떤 세부적 주제를
원하는 지와 가능한 시간대 사전조사
->'아이들 교육'을 주제로 한 강의 열기(1월)



너무 늦게 시작한 데다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니 아쉽다. 아이들만 만나다가 어른들을 만나니 처음엔 좀 어색하기도.. 또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글자를 못 읽으셔서 수요조사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면, 아주머니들이 다 모이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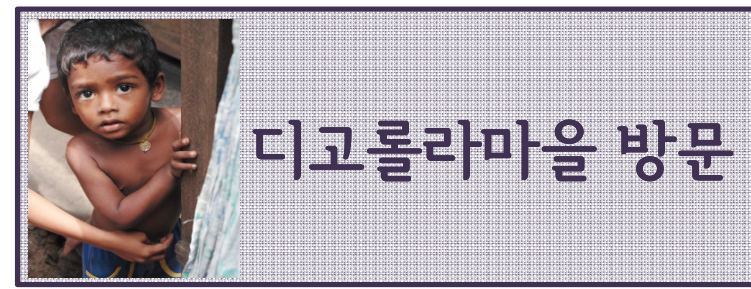
먹을 것도 주시고, ‘대장금’ 이야기도 물어보시고! 우리들의 싱할라를 듣는 것도 무척 좋아하신다. 웃음 빵빵터짐^_



특히 위생과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월에는 디고롤라, 루나와, YMCA Children club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열 예정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좋은 자원들을 연결시키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매주 수요일 10시, 배뚱과 나말의 동화구연 나눔이 열린다. 평소에 책을 읽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동화구연은 아이들에게 매우 생소했기에, 우리가 먼저 동화구연을 준비해 시범을 보이고 아이들이 따라서 조금씩 시도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동화책을 읽고, 내용에 따라서 나름대로 흉내도 낸다. 아기 오리가 걸어가 는 모습, 코끼리 춤추기, 고양이 울음소리, 개가 짖는 소리(제일 좋아함), 배 부른 쥐 등등...

월요일 YMCA에서 만나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지만, 이 동화구연 시간 만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웃고 떠들며 재미있게 보내고 있다.



YMCA 홀에선 맘대로 뛰어 놀던 아이들이, 마을에선 뭘 공간이 없으니 그냥 모여 있다. 또,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얌전해서 참 좋다.^ 아침시간에 늦잠 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도 있고, Y에 오지 않는 아이들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좋을 텐데...!

허벌드링크(콜라겐스) 프로젝트

중간평가 이후 콜라겐스 프로젝트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다. 최근 루나와 병원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 음료 양이 많이 남는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병원에서 무료 약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사람들이 다른 병원으로 찾아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매주 수요일에 하던 프로젝트를 2주일에 한 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YMCA 유스 멤버를 위한 태권도 클래스

한 명으로 시작된 유스멤버 태권도 클래스, 이 학생 마저도 꾸준히 오지 않아 우리는 매번 기다림을 반복했다. 중간평가 이후, 우리는 이 태권도 클래스를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생이 많은 칠드런 멤버 태권도 클래스는 계속된다!

관계맺기 인연만들기





With 니할따따

니할과 추억만들기

2012년 12월 31일 따따의 생일&12년 마지막 날
다른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도 우리를 많이 신경
써주셨다☺ 우리들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무척
좋아하셨음! 하나도 빠짐없이 동영상 촬영을~
항상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아버지이다^_~

WHO IS 니할?

커미티 চে어맨 ☺

늦은 밤에도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홍길동(동에번쩍 서에번쩍)
태성이와 고을이와 함께
매일 주일 아침을 보냄.

예배 후, 맛있는 빵은 덤으로 -
크리스마스 산타로 집 깜짝 방문
네팔 세미나 후에도 선물을 (감동)
칭찬과 격려로, 우리에게 늘 힘과
힐링을 가져다 주심





With 자야랏나

자야랏나가족과 추억만들기1

12월 15~16일 반다르웰라 여행!

자야랏나파파의 고향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모라투와를 벗어나 리얼 스리랑카 농촌의 모습
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WHO IS

자야랏나?

4개월동안 우리의 끼리떼를 책임
져주심(하지만 미안함이 앞서
떼를 달라고는 못 함ㅠㅠ)
우리의 콜라켄느를 언제나
준비해주심(미안함)
내년 새로 태어날 딸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심
루시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심
매일 상황극 개그를 해주시며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심☺



파파네 아버지, 누이동생 가족과 함께



With 자야랏나



<=
잭프룻을 따는
동네아주머니의
정겨운 모습

=>
따파네 형님집
가족들과



우리에게 반다르웰라는...

스리랑카에서 처음 추위를 느꼈던 곳이었고, 따파와의 관계가 없었으면 가지 못했을, 폭쉬고 잘 먹고 돌아온 여행이라기보다 휴양이었다. 친척들이 모여사는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곳에는 우리와 이름이 같은 수무두와 빼품이 있다. 수무두는 너무 말이 많아서 홍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놀았다는... ㅎㅎ

자야랏나가족과 추억만들기2



With 자야랏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함께 풍선도 불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다같이 놀면서 즐거웠던 날

벌써부터 헤어질 일이 걱정...

여느 기수처럼 우리도 이 가족들과 헤어질 때 제일 슬프지 않을까?

집같은, 언제든지 찾아가면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는 엄마가 계시는 곳.

학교갔다고 하면 우리부터 찾는 아이들.

그래서 괜히 더 마음이 짝해지는 아이들

BUT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볼 때면 라온 아피들과 많이 친했던 게, 꼭 좋은 영향만을 준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지혜롭지 못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아이들에게 혹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된다.



With 말린드라

말린드라와 추억만들기1



WHO IS 말린드라?

커미티에서 가장 젊고 진보적^^.
 커미티 멤버중 유일하게 우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유스클럽)에
 참여하고 담당해주시는 유일한 분.
 아이들의 학교에도 여러 번
 초대받아 프로그램을 진행.
 암마는 요리를 잘하심.
 한국인의 입맛을 알고 계심♥.
 연락없이 불쑥 집에 찾아오실때는
 조금 난감함...-_-;;

12월 1일, 셋째딸(스투미니)네 학교 캠프 진행
 이게 정말 같이 즐기는 거구나! 이게 바로 라운
 아피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꼭 어려운 아이
 들만 만나 힘들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보단, 이러
 게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 어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했던 하루!

말린드라와 추억만들기2



With 말린드라



12월 23일, 함께 트리꾸미기
아이들이 많아 트리를 모두
뒤덮을 정도로 장식을 하고,
함께 저녁도 먹었다!



12월 25일, 옥상에서 바베큐파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기까지 일가친척이 모두
모인 크리스마스 바베큐파티에 우리를 초대해주셔서
말린드라파파에게 무척 감사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해서 조금 섭섭하기도 했던 날이기도
했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 밤을 보냈다😊



With 노엘

노엘과 추억만들기1

WHO IS 노엘?

수줍음이 많은 우리의 코디네이터♡
 김연아도 저리 가라! pure boy~
 우리와 이야기 할 때 들떠있고,
 이사회분들과 함께 있을 땐 긴장하는
 귀여운 매력이 있음.
 늦은 출근과 칼 퇴근
 하지만,
 집에 가면 우리의 전화를 안 받음.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사람.

12월 8일,
 노엘 딸 유치원 콘서트
 노엘이랑 똑 닮은 딸,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처음 친해지는데 힘들
 었다.... 아버지역할을
 하는 노엘을 보니 새로
 윷고 가장의 어깨가 무
 거워 보여 안타까웠다.

ㅠ_ㅠ



노엘과 추억만들기2



With 노엘



12월 26일, 노엘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노엘 집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고 가족 모두가 춤을 잘 춘다☺

노엘wife는 정말 친절하고 순수하다! (저번에 우리 집에도 방문한 적 있는데 정말 착하고 우리한테 잘 대해주셨다) YMCA를 벗어나서 노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With 유스클럽

캐롤 순회공연 ♪



WHO ARE 유스클럽 멤버?

모라투와 YMCA의 청년 모임
 쉽게 취소되는 계획들, 시간 약속으로
 우리와 갈등도 몇 번 있었지만
 나이대가 비슷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개인으로 만나면 너무 좋은,
 너무 멋진 사람들!
 (특히 마지막 파티 때 춤은 너무 멋졌다^^)
 친목활동 위주로만 구성되는 모임,
 모든 멤버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쉽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직 부족하지만,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12월 26일,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캐롤서비스
 우리가 본 유스클럽 행사 중 가장 컸던 행사!
 맨 처음 드라마 준비한다고 했을 땐 잔뜩 기대했는데,
 점점 작아져 캐롤 공연이 되었다(...)
 첫째 둘째 공연은 사람도 많고 호응이 좋았다. 특
 히 산타로 활약해준 빼뽀미 나타날 때에는 아이들
 이 너무 좋아했다! 하지만 시간 계획성 없었던 공연
 으로,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별로 없어 아쉬웠다.
 -> 순회공연이 끝나고 다함께 파티를 가지며 즐거
 운 시간을 보냄!



With 갓프리따따

갓프리와 추억만들기



WHO IS 갓프리따따?

모든 여행을 동행하신
코디네이터 2인자.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신경 써주심.
잔돌이라고 소문났지만,
무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그는
마음만은 부자♥
귀여운 캐릭터 티를 가지고 계심
(함께 여행할 때만 볼 수 있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베다니홈도
소개해주심

12월 30일, 따따집에서 함께 점심을!

집이 너~무 예뻐서 감탄했음. 우리가 가 본 집
중 가장 예쁘고 깨끗한 집이었다.

수랑거니(따따wife)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오
랫동안 나누고 여자단원들은 사리를 선물로
받았다. ^_^ (이스뚜띠~♥)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만남을 시작으로
한국 식당과 한국 빵집에 데려가 주심
(대박) YMCA 크리스마스 행사도 바쁘신
가운데 와주시고 집에도 초대해주심.
마운트 라비니아 호텔에서 맛있는 음료수도
사주시는 천사 목사님☺
코코넛 비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남은 고춧가루를 나눠드립니다^^



With 정은범목사님

WHO IS 정은범목사님?

20년 전에 스리랑카에 오심
(현지인도 놀라는 싱할라의 고수)

싱할라어 사전을 편찬하심

- 세종학당 학장님

구체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
단지 사명이 아니라, 스리랑카가
좋아서 이 곳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리랑카를 사랑하시는 분.



정은범 목사님 만날 수 있어서, 알게 되어서 참
기쁘다. 우리를 살갑게 챙겨주신다.

스리랑카 생활을 물론 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
는 고민도 나눌 수 있어 우리는 행운인 것 같다.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디고
롤라도 1월 중 함께 방문할 계획이다.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사람들과
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



With 베다니홈

아이들과 추억만들기1

WHO ARE 베다니홈 아이들?

대부분 부모님께서 거리생활을 하고
계셔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
베다니홈에 맡김.
(여기에선 고아원이라고 불림)
큰 가정집에서 수녀님께서
only여자아이들만 관리하심.
13~15명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
15년 만에 친모를 만나기도 하고,
가끔 엄마가 찾아오기도 하는 시설. 큰
가정집에서 수녀님께서 운영하심.
아이들이 마음씨도 얼굴도 너무 이쁨.
우리에게 감동을 준 천사 ♥



12월 9일,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파티를!
Y's man회원인 갓프리따따의 초대로
베다니홈에서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파티
를 즐겼다. 소녀같은 아이들 덕분에 우리도
행복했다는^_^

아이들과 추억만들기2



With 베다니홈



12월 28일,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 춤추기 & 노래부르기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우리 스케줄 비는 날 갓프리따따한테 부탁해 베다니홈을 방문했다. 진작 알았다면 더 자주 방문했을 텐데... 떠나는 시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우리를 너무 좋아해주어서 우리가 되려 고마웠다.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잘 따라주고, 도와주었다. 내년 12월에 또 오라고 해서 마음이 찡했다ㅠ_ㅠ



With 747마마

마마와 추억만들기

WHO IS 747마마?

우리의 점심을 책임지는 747
(마마는 랑카말로 삼촌이에요^^)
새로운 반찬들은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완전 친절하심.
747이 문닫는 날이면...
우리들은 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맛에 길들여짐.
매일 discount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26일, 마마집에서 점심먹기

가게와는 다른 대궐같은 집.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아이들과 다르게 마마집 아이들을 만나니 랑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초대하고 3시간동안 밥을 안주시다니... 랑카의 초대문화를 뼈저리게 느낀 날이었다.

2012년 7월 16일 처음 만난 우리들.
지금까지 함께 지내 왔고 이제 한달 남짓
남았다. 스리랑카에서 많은 기억을 함께 하
며 함께 일해온 우리들.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With 랑카8기

우리들만의 크리스마스 파티!!

WHO ARE 랑카8기?

배똥, 수무두, 히말리, 나말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이곳 스리랑카, 모라투와에 모였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우리 랑카 8기
수무두는 나말을 괴롭히고, 히말리는 배똥
을 괴롭히고, 나말은 모두를 괴롭히고,
배똥은 그저 무관심하다.
같이 살아서 그런지 진짜 가족 같은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초반기보다는 덜 싸우고
덜 마음 상하지 않았나 싶다.
이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행동을 하게 된다.



바쁜 초대 일정 중에도 배놓을 수 없었던 우리들만
의 크리스마스 파티! 그와 함께 크리스마스 기념
선물 교환식이 있었다. 다들 선물도 만족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들여다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우리끼리 노래 부르고 춤도 추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한국에서는 할 수 없을, 스리랑
카에서 우리들만의 노는 방법을 찾아 가고 있다.

12월 18일

YMCA에서 캐롤서비스

노엘(영어), 칼라카따(싱할라), 흰 눈 사이로 (영어, 한국어)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한국어)



With 랑카8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했다. 우렁찬 박수소리! 인기스타가 되었음. 특히 안무를 똑같이 맞춰 하니 정말 예쁘다고 하심☺ 2주 동안 주말도 없이 매일 매일 연습한 우리 스스로 대견했다. 연습 할 장소도 매일 찾아 헤매고ㅠ 안무 짤 때는 어렵기도 했지만 하고 나니깐 스리랑카에서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다! (뿌듯뿌듯) 춤으로 좀 더 액티브하게 캐롤 프로그램을 채웠던 것 같다.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다 보여주었다!!!!

보고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하하)

사진으로 보는 12월의 랑카



디고롤라 클래스 교통안전교육



Children class 몸으로 말해요!



우리끼리 콜롬보行☺ (베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남남)









Book Donation for children



12월을 마무리하며...



HIMALI: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한가지는 우리 팀원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잘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 혼자 였다면 이렇게 많이 웃지도 못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을 포기했을 것이다. ‘조직’, ‘우리’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놀랍게 느껴진다. 조직이 가지는 한계도 있지만, 조직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 억지 고백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성장시켜 줬다가 아니라, 진실로 이 사람들을 인생에서 알게 되어서 행복하다. 나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는 책의 구절이 생각한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도, 매일 아침 YMCA 출근하지 않고, 끼니마다 뭐 만들어 먹지 고민 안하고,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팀원들이 없을 나의 한국 생활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돌아가면 지금 이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지고, 바쁜 생활에 정신 없겠지만 이 곳에서의 배움과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 한 켠에 자리잡을 것이다.

SUMUDU: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 곳에서의 생활이 100프로~즐겁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지만, 마주해야만 했던 갈등들은 나를 더욱 성장시켜줬음에 감사하다. 가끔 너무 외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이 곳이 아니었다면 느낄 수 없었을 감정이었기에 그것마저 값지다. 처음에는 이 곳에 온 것은 온전히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랑카에서의 생활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선택 받은 것이라 느껴진다. 나를 이 곳으로 이끌고 성장시켜주신 그 위대한 힘에 놀라울 따름이다.

사람냄새 풍기며 다이나믹한 하루들을 보냈던 이 곳이 마냥 꿈같진 않지만, 그렇기에 내겐 더 의미있는 4개월이었다.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할 시간... 남은 한 달도 이 때 동안 잘 해왔던 것처럼 후회없이 보내고 가야 겠다 ^_^ 랑카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안고 살아갈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된다.

PATHUM: 100일, 응녀가 쭉, 마늘먹고 사람되는데 걸린 시간. 나는 동물이 사람되는 그 시간보다 긴 기간을 스리랑카에서 보내고 있다. 그동안 겪은 많은 일들이 내게 마늘,쭉같이 맵고 씹쌀했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위해 필요했을 경험이었지 않았을까. 낯설던 장소와 사람들이 눈에 익어진 시간이, 훗날 떠올리면 꿈같은 이 생활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야한다. 가는 시간잡고 징징대봐야 그만큼 무의미하게 흘러갈뿐이라는 걸 알기에, 억지로 뭘 하려기보다 흘러가는 시간을 안타까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즐길 수 있게 마음을 추스려야겠다. 예전 배낭여행 다닐 적에 만났던 지인분들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난다. 여행은 얼마나 오래하냐, 많은 곳을 가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거라며. 그리고 그 ‘잘’이라는 의미는 내가 부여하기 나름이라고. 또, 여행하면서 느끼는 그 가벼운 마음,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갈때 다른 건 다 버리고 돌아가도 그것만은 챙겨갈 수 있다면 꼭 챙겨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의 따뜻했던 마음은 가슴에 담아 가도록 해야겠다.

Namal :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갖고 있었던 ‘불안’, ‘걱정’ 등은 이제 ‘익숙함’으로 바뀌어 있다. 스리랑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지난 120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다. 처음에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30여 일을 남겨둔 지금, 지나간 순간들을 돌이켜 보면 시간은 빨리도, 느리게도 흐르지 않았다. 시간은 매우 정직하게 흘렀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우리 네 명의 손님들에게 베풀어 준 게 너무나 많았다. 12월의 마지막 주에는 연이은 식사 초대와 행사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받아 본 적은 없었다! 그들은 우리를 잊지 못할 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한달 뒤에 떠나면 서로 못 볼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잘 해주는 걸까. 자꾸만 정들고 아쉽게. 스리랑카에서 나는 가장 멋진 날을 보냈고, 앞으로 한국에서 더욱 멋진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실천하는 것. 내가 앞으로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건강하게 잘 살다 한국으로 돌아간다!